

“필요한 것만 사요”...고물가에 가벼워진 장바구니

수박 46%·상추 90% 급등...소비자들 전통시장서도 주저 손님 끊긴 상인들 “장사 아닌 버티기”...소비 위축 악순환

“생선부터 과일까지 안 오른 게 없어요. 고민만 하다가 못 샀어요.”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가 식품·외식 가격으로 이어지면서 서민 생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과일 가게 앞 수박을 한참 들여다보던 손님은 비친 가격표를 확인한 뒤 상인과 대화를 나누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또 다른 손님들도 가격표를 확인한 뒤 한숨을 내쉬거나 구매를 포기한 채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인근에 위치한 채소 가게 앞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이어졌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종종 멈춰 섰지만 대부분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다시 내려놓거나 가격표를 한참 바라보다 구매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이 반복됐다.

고물가 장기화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주저하고 있다.

실례 aT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농수산물 가격정보에 광주·전남지역 농수산물 가격은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15일 기준 수박 1통 가격은 3만 원으로 지난해 2만500원 대비 46.3% 올랐다.

또 감자 100g은 390원으로 지난해(310원) 기준 25.8%, 배추 1포기는 3680원으로 지난해 3000원 대비 22.7% 상승했으며 지난해 400원(100g)이었던 상추는 760원으로 90% 폭등했다.

이밖에도 호박(애호박, 1개)은 전년(1000원) 대비 33% 오른 1330원, 대파(1kg)는 25.2% 상승한 2780원에 거래됐다.

축산물 가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삼겹살은 100g 기준 지난해 2708원에서 2779원으로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양을 구매할 경우 2만원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50대 주부 김모씨는 “살 건 많은 데 설탕 담기가 어렵다. 예전에는 뭘 먹든지 고민했는데 이제는 뭘 포기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다”며 “장을 보러 나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구매 후 예상보다 금액이 크게 나오면 부담이 크다 보니 아예 소비를 줄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고물가에 상인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른 아침부터 물건을 들여놓고 문을 열고 있지만 물품을 구매하는 손님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서다.



고물가 속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면서 17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수산물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정포마다 생선과 해산물이 진열돼 있지만 오가는 손님은 드물고 일부 상인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손님이 지나갈 때마다 몸을 일으키지

만 가격을 묻고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다시 자리에 앉기를 반복하고 있다.

일부 가게는 아예 셔터를 반쯤 내린 채 문 앞만 열어둔 상태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모(56)는 진열된 고기를 몇 번이고 정리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박씨는 “고기 값이 오르니까 손님들이 아예 안 들어온다”며 “손님이 없으니 냉장고 안 고기가 썩지 않아 물건도 못 들

여고,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단골들이 매일같이 들

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올까 말까다. 이제는 장사라기보다 버티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장바구니 체감 물가를 낮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단기적인 할인 정책뿐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HD현대삼호 폐기물 매립 제로, 세계서 주목

재활용률 86% 달성 국제인증 획득...자원순환 고도화

HD현대삼호가 국제 인증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HD현대삼호는 최근 국제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 제도다. 재활용률 80% 이상을 달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HD현대삼호는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위해 페스티폼을 재가공해 잉곳(ingot)으로 자원화하고, 폐합성수지를 친환경 원료와 순환에너지로 활용하는 한편 폐수 슬러지와 존실토 등을 친환경 자재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HD현대삼호는 연간 매립·소각 폐기물 발생량을 8% 줄였으며, 폐기물 처리 비용도 4억8000만원 절감했다.

재활용률은 지난 2023년 78%에서 지

난해 86%로 8%p 상승했다. 특히 이번 인증을 계기로 자원순환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연간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규모를 7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재활용률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확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친환경 기술 개발과 혁신경영을 통해 글로벌 조선업계의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영남=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영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 어워즈 기아 PV5 페이스저 ‘최고 대형차’

기아가 PV5 페이스저가 영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카가 주관하는 2026 오토카 어워즈에서 ‘최고의 대형차’ 부문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오토카는 PV5 페이스저의 미래지향적인 스타일링, 세련된 주행감, 실내 레이아웃에 주목하며 동력 성능과 주행 거리,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전동화 다목적 차량(MPV) 및 경상용차(LCV)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오토카 어워즈 심사위원은 PV5 페이스저 모델의 진보적 디자인, 영리한 공간 구성, 뛰어난 상품성을 예로 들며 전동화 상용차의 혁신적인 재해석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로 평가했다.

PV5는 최근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왓카가 주관한 2026 상용 및 밴 어워즈에서 올해의 밴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TP, 스마트공장 통해 산업 혁신 가속화

식품·바이오 기업 지원 확대...성장 동력 확보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지역 농수산물 부가가치 극대화 및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전남테크노파크는 ‘2026년 전남 지역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혁신 정책과 연계해 전남도가 추진 중인 ‘2030 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단순 가공 중심인 전남 식품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기능성 소재나 약품 원료로 전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제조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남지역에 스마트제조 및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입해 식품·바이오산업 제조 수준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표준화된 원료 공급 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 소재 식품·바이오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며, 사업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정원의 국비 지원

(50%)과 더불어 전남도와 기초지자체에서 각각 15%씩, 사업비의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지원유형은 ‘고도화’, ‘동일수준’ 2개 분야로 스마트 HACCP 및 스마트GMP 관련 솔루션,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고도화 유형은 최대 4억원의 구축비를 통해 생산 후 품질검사 통한 제품 불량률 감소를 위한 검사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이번 공고를 통해 ‘고도화’ 유형 기업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초’ 유형은 6월 중 추가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그린·블루 바이오 소재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단순 가공 위주의 산업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17일 패밀리기업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호남연수원 패밀리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제3차 HUG 협의체’를 개최했다.

중진공 호남연수원, 기업 현장 목소리 경청 ‘을인’

패밀리기업 지정·HUG 협의체...인재양성 방안 등 협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17일 패밀리기업과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호남연수원 패밀리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제3차 HUG 협의체’를 개최했다.

HUG 협의체는 ‘패밀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자원개발(HRD) 분야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소통 플랫폼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고려오트론㈜, ㈜광일기공, ㈜대진정공, ㈜무진기연, ㈜무진서비스, ㈜스워크진공, ㈜에스이, ㈜에이치엠사, 에코피스㈜, ㈜중원로지스, ㈜케이에스산업안전협회, ㈜프리스전오텍스 등

12개 패밀리기업이 참여했다. 또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인공기능산업융합사업단, 광주산학융합원 등 지역 유관기관도 함께해 중소기업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패밀리기업 제도는 인재육성과 직원 역량 강화에 적극적인 중소벤처기업을 지정해 연수비 할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시설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참석자들은 AI·디지털전환 분야 교육 확대와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강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연수과정 개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호남연수원은 찾아가는 산업안전 연수

운영, ISO10002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노후시설 개선, 지역사회 시설 개방 등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형 교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경호 호남연수원장은 “HUG 협의체는 2024년 출범 이후 3년째 운영되며 연수원과 기업, 유관기관이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현장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확대와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KPS, 노·사·감 합동 ‘청심환 캠페인’ 서약식

한전KPS는 지난 16일 본사 대강당에서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다지는 ‘노·사·감 합동 청심환(淸心環) 캠페인 서약식’을 개최했다.

‘청심환 캠페인’은 ‘청(淸)렴한 소통’을 통해 의전문화를 ‘간소화(SIMple)’하고, ‘근무환(環)경 개선’을 추진하자는

의미를 담은 조직문화 혁신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연 사장, 김종일 노동조합위원장, 이상규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 청렴소통 확대, 조직문화 개선, 상호 존중 문화 정착 등을 위한 공동 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행사 중 노·사·감 대표가 직접 참

여해 ‘청심환 퍼즐’을 직접 맞추며 캠페인의 핵심 가치를 함께 실천해 나간다는 의지를 다졌다. 완성된 퍼즐은 노·사·감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문화 혁신과 공동 실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홍연 사장은 “조직문화의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구성원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정 기자 pose007@